불광사 갈등에 일요법회도 멈췄다

광덕 스님 유지인 일요법회 갈등으로 45년 만에 중단

주지 진효 스님 중단의사 표명
일부 신도, 법회 방해 목탁 시위
신도간 고성 · 몸싸움까지도 발생
자체 법회 예고, 갈등 지속될 듯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17일 불광사 일요법회서 주지 진효 스님이 법석에 오르자 목탁시위를 하는 일부 신도들의 모습. 제보영상 캡쳐.

불광사 불광법회가 혼란에 빠지며 광덕 스님이 선구적으로 개창한 불광사 일요법회가 45년 만에 중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11월 17일 일요법회서 "일부 신도들의 조직적인 법회 방해로 일요법회를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불광사는 최근 박홍우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광사 일부 신도들이 법회마다 고성과 목탁을 치는 시위를 벌여 정상적인 법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외부 법사 초빙 법회에서도 목탁시위 등으로 법회가 중단됐다.

불광사 일요법회는 1974년 광덕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창립된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상징이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10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찾고, 법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 등도 함께 진행돼 호평을 받아왔다.

이런 불광사 일요법회는 불광사 갈등 촉발 이후 파행됐다. 일부 신도는 법사 스님이 법석에 오르면 '마하반야바라밀' 을 외치고 목탁을 치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법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다.

법문을 거부하는 신도들과 법문을 듣고 싶다는 신도들의 고성이 시작됐고 몸싸움도 진행됐다.

주지 진효 스님은 불광사 일요법회 파행 후 11월 18일 신도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리며 "법회 위의 유지와 신도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분간 일요법회를 중단한다. 나머지 기도법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일요법회 정상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달라"고 공지했다.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위원장 한영욱, 이하 불광비대위)는 "불광사 일요법회 중단을 촉발한 법석 방해 목탁시위 등은 박홍우 법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명등과 정법수호위원회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이날 법회에서 특히 주지 진효 스님이 지난 10월 13일 광덕문도회에서 결정된 '명등회의 불광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 무효' 와 '지정 스님의 창건주 권한 유지' 를 밝히려 해 격렬한 법회 방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법회를 요구하는 신도들과 목탁시위를 벌이는 신도들의 충돌이 예상돼 사찰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법회 중단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불광비대위 측은 "수많은 신도들은 법회에 왔다가 실망과 분노를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도심 포교 1번지였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박홍우 신도회장의 야욕에 의한 파행으로 폐쇄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불광비대위 측은 "사찰 안정화를 위한 신도회장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홍우 신도회장을 비롯한 정법수호위 측은 "재정투명화를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시 거부, 법문 거부 등을 밝힌 상태"라며 "이미 법문은 광덕 스님 영상법문 대체를 밝힌 바 있다. 재정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주지 스님 측에서 일요법회 중단을 선언해도 보광당에서 일요법회를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참회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14~17일 현장 방문 기도회

하미 · 퐁니 마을서 참회 기도
"진상규명 · 정부 사과 이뤄져야"



퐁니, 퐁넛 마을 추모비에서 이뤄진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 추모 기도회에서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피해 생존자에게 참회의 절을 올리고 있다.

한국불교계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마을 현장에서 참회기도회를 열고 집단 학살에 대한 참회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하미 · 퐁니 퐁넛 마을을 직접 방문해 참회와 극락왕생 발원 순례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기도회에는 위원장 혜찬 스님을 비롯해 위원 혜문 · 법상 · 대각 · 인우 · 현성 스님 등이 함께했다.

다낭 관음사에서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사회노동위원회는 하미, 퐁니, 퐁넛 마을 학살 현장을 찾아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특히 퐁니, 퐁넛 마을 추모비 앞에서 이뤄진 기도회에서는 피해 여성인 응우옌티안 씨의 증언이 이뤄졌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안 씨는 "당시를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니, 언니, 동생과 친척이 모두 죽어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고아로 살았다"면서 "바라는 것은 학살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 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도 멀리서 찾아와 기도를 올려주는 스님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한국정부가 이 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스님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혜찬 스님은 "한국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강력히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노동위원회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희생 양민에 대한 추모와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살나눔 여든까지' 어린이 나눔 교육 눈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최근 재단운영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완성한 나눔 저금통을 전달받았다. 원아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수개월간 난치병 환아들과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해 용돈을 모았다. 이날 저금통에 담겨 전달된 모연금은 약 200만원이다.

뜻깊은 모연금을 전달받은 복지재단은 "하나하나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마음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도 따뜻해지고 있다. 나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눔에 함께한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은 동전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적 자살예방' 어떻게 할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종교별 지침서 발간해

자살예방 사상적 바탕 및 현장 예방프로그램 등 소개
전국사찰 배포, 비치 예정



불교상담개발원 등 불교계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와 함께 11월 14일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사진〉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는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종교계 부문 공동사업의 하나로 협의회는 복지부, 종교인평화회의와 협력하여 1월부터 종교계 자살예방 실천을 위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해 왔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는 불교계를 비롯해 이웃종교계와 정부,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이 참여했다.

불교계서는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등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불교계 자살예방 지침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왜 자살예방에 나서야 하는가' 에 대한 사상적 바탕을 담고 있으며 '불교 생명사상과 공업중생' , '불교에서 본 자살의 원인과 과보' 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불교계 자살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과 산하 상담기관인 (사)자비의전화 사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교육과정' 안내 및 불교계 활동을 소개한다. 불교계 단체들이 함께 펼친 '살사토크 콘서트' , '성주 자비생명숲길 조성' , '자살예방강좌' , '자살예방거점확대사업' , '자살예방종교인 선언대회' 등을 안내하고 참여 가능한 방법도 함께 전한다.

이와 함께 MBSR(마음챙김스트레스 감소법)과 같은 현장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아울러 3장에서는 MSC(자기자비명상)을 바탕으로 한 자살자 유가족 치유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은 "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며 "불교계 또한 이번 발간된 지침서를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전국 교구본사와 자살률이 높은 충남, 충북, 전북, 강원의 사찰을 우선으로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본지 '뉴미디어' 기획 불기협 기자상 기획해설부문 수상

선원빈상 BTN '포교, 꽃 피우다'
보도부문 법보 '세계유산관리법'
오는 12월 2일 불기협 밤서 시상



본지 뉴미디어 기획 기사 사진

본지 창간특집 기획 '불교언론 & 뉴미디어' 가 한국불교기자상 기획해설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1월 18일 심사위원회(위원장 차차석) 회의를 열고 2019년 한국불교기사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한국불교기자상 기획해설부문에 본지 신성민 · 노덕현 기자의 '불교언론 & 뉴미디어' 를 선정했다.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는 BTN불교TV 정준호 기자의 '포교, 부처님 법 꽃을 피우다' 가, 취재보도부문에는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의 '불교 자주성 박탈 세계유산관리법' 이 각각 수상했다.

불교계 언론의 뉴미디어 진출 현황과 모범 사례를 조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핀 '불교언론 & 뉴미디어' 는 불법 홍포를 위한 불교 미디어가 현재의 미디어 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심사위원회는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불교계 언론의 고민을 현장의 목소리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과 혜총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더부페에서 열린다.

박재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1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